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담대한 계획'이었나? 아레스토비치의 인터뷰

스푸트니크

이 인터뷰는 현재 젤렌스키 정부의 대통령 고문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가 2019년 우크라이나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우선 아레스토비치의 이력은 꽤 독특한데, 그루지야 출신인 그는 본래 2004년 오렌지 색깔혁명을 "오렌지 역병"이라며 비난하고 두건의 유라시아주의를 지지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로 전향하고 오데사 사관학교에 입학해 군 복무를 한 뒤 마이단 쿠데타 이후 군사 전문가로 주목을 받아 정계 진출을 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막대한 군사적 지출때문에 불가능하며, 나토나 러시아 둘 중 하나에 붙는 수 밖에 없다. 나는 나토를 선호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는 4천만 인구와 실전 경험이 있는 백만 대군을 가진 국가를 얻게 된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10년 후 러시아에 흡수 될 것이다. 나토 조항에는 영토 분쟁(돈바스, 크림)이 있는 국가는 나토 가입이 거부되지만 현재 나토 회원국 간에도 영토 분쟁이 있으며(지브롤터, 키프로스), 현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유용성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 러시아는 전면전을 걸어올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크림, 돈바스 방면으로 침공해 하리코프, 헤르손, 니콜라예프, 오데사 등등에 '인민 공화국'들을 세우려 할 것이다. 나토는 우리에게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주고,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직접 개입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는 전쟁 패배와 제재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딱 잘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년 아레스토비치의 모습. 스테판 반데라에 관한 책을 배경에 배치했다.

아레스토비치의 전략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결국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났고, 그가 예견한 러시아의 침공 루트도 대체로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나토는 무기와 장비,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는 직접 개입만은 하지 않았고,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도 푸틴 정권은 끄떡도 않고 있다. 되려 서방이 캔슬컬처를 통해 뿌리깊은 루소포비아를 공공연하게 내비치자 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 반서방 심리를 자극해 적대감만 키웠다.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이 인터뷰에 대해 아레스토비치가 러시아의 침공을 예견했다면서 찬양하기에 바쁘다.(해당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게시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라) 하지만 이 인터뷰에서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젤렌스키 정권은 나토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시도했다.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를 도발한 것이다. 나토의 개입만 있다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발언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의 침공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젤렌스키 수뇌부의 계획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2021년 우크라이나군과 미군, 나토군의 합동 군사훈련

이러한 아레스토비치의 구상을 보면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담대한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크라이나만의 독단적인 계획은 아니고, 서방과의 합의와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서방은 러시아 압박을 위해 2014년 마이단 쿠데타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었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오고 있었다.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

1912년 리프크네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는 전쟁이며, 사회주의는 평화다. 사회주의가 전쟁의 분노를 막을 힘을 갖고 있는가?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한다면 그 힘을 갖게 될 것이다."